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3월 22일(주일) 제1041호

내 몫의 십자가



사진은 지난해 고난주간 심야예배 모습.

고난주간 심야예배 ... 3월 30일~4월 3일

금식헌금봉헌, 십자가 목걸이 걸기, 침묵기도 동참

캠퍼스에서 드린다. '내 몫의 십자가'를 주제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예배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현중 목사(동안교회),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김성근 목사(열방빛선교회), 명성진 목사(예수마을교회)가 설교한다. 4월 3일에는 성금요일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금식한 금액을 헌금하기로 했다. 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후에는 침묵하며 기도하기로 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인물_ 일대일 양육 3대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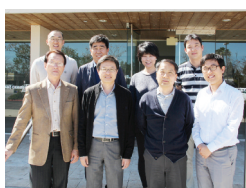
“그것이 일대일의 힘”
일산공동체,
일대일 양육 3대이야기
일대일은 필수불가결



기획_ 해외비전교회 탐방

» 4-5면

앨버틴, LA, 샌디에
이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탐방
지역사회, 다음세대
위한 사역 펼쳐



4월 12일 교회에 차 안 가져 오는 날

4월 12일은 '러빙유데이(loving u day)'다. 전교인들이 교회에 차 안가지고 오기 캠페인을 벌인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당일 서빙고와 양재(이천만광장, 주차장)에 사역소개 테이블이 마련된다.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일정: 4월 1일~6월 17일(매주 수)
시간: 오후 2시~5시 30분(회비 3만원)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02-3215-3533)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one@onnuri.org, 02-3215-3193

인터뷰

“그것이 바로 일대일의 힘”

일산공동체 ‘일대일 양육 3代’ 이야기

‘일대일 양육 3代’를 아는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모두 일대일 양육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육자(1代)가 키운 동반자(2代)가 어엿한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3代)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대일 양육 3代라고 한다.

일산공동체에 ‘일대일 양육 3代’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백성현·정지현 부부(1代)와 김영상·전상미 부부(2代), 이정근·문혜영 부부(3代)다. 백성현 집사가 김영상 성도를, 김영상 성도 부부가 이정근, 문혜영 부부를 일대일 양육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만나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들어보았다. 모두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서로를 만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산공동체 일대일 양육 3代.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문혜영 부부(3代), 김영상·전상미 가족(2代), 백성현·정지현 부부(1代)

일대일은 큐티와 더불어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 과정이다. 양육자로부터 일대일양육 받은 동반자가 ‘양육자’인 과정을 수료하면 양육자로 탄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양육 받은 것처럼 동반자를 받아 들여 일대일 제자로 삼는다. 양육 받고,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양육하는 시스템이다.

일대일 양육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보통 동반자반 과정이 16주, 양육자반 과정이 또 16주다.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꼬박 해도 1년 가까이 걸린다. 제출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매주 일대일 만남을 해야 하기에 바쁜 직장인들은 특히 더 힘들어한다.

양육자가 되어도 바로 동반자를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결이 잘 안되거나, 상대방 사정으로 과정 이수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일대일 양육 3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에 만난 일산공동체의 일대일 3대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편의상 이름을 생략하고 1代, 2代, 3代로 표기하겠다.

일대일의 은혜와 열매는 실로 달콤했다

일대일 양육 3대는 공통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교회 등록을 위한 일련의 과정’쯤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1대는 일대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받았죠. 그때만 해도 일대일을 해야만 교회 등록이 됐거든요”라고 했다. 2대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8개월간 배회했어요. 그때 교회에 정착하고 싶어 일대일을 받았는데 그 덕에 공동체에 정착하게 됐어요”라고 했다. 3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새신자 과정도 간데, 일대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교회 등록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시작은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일대일이 예상 못한 기쁨과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양육자 입장에서, 동반자 입장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열매는 실로 달콤했다. 1대의 경우 자신들이 양육한 2대가 성장해서 어느덧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

“동반자가 바쁜 시간을 쪼개 일대일을 받으러 오는 모습 자체가 은혜로웠어요. 16주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양육자반까지 성실히 마치더라고요. 거기에 순장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흐뭇했어요.”

2대는 1대한테 받은 사랑과 섬김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양육자님한테 사랑을 배웠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선배들이 오히려 상처주고,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양육자님은 달랐어요. 제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따뜻하게 섬겨주셨어요. 양육자님께 받은 사랑을 저도 제 양동반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대는 MK(Mission Kids, 선교사 자녀)다. 선교사 부모를 둔 덕에 신앙이 튼튼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생활과 거리가 멀었다.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은 일대일

이었다. 그 일대일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깨뜨렸다.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바빠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바쁜 시간을 내어 성실히 섬기는 선배들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교회와 가정에서 충실하면서 사회생활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3대에게 일대일은 누구보다 특별했다. 태교를 일대일로 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일대일 시작할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2대 양육자님께서 태몽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몽의 주인공이 우리 아기였나 봐요.”(웃음)

태교를 일대일로? 의아해서 2대를 바라보니 상긋 웃는다.

“3대를 소개받던 날 제가 태몽을 꿴어요. 루돌프 시슴을 안는 꿈이었어요. 그날 1대 양육자님께 일대일 연결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둘째 태몽이 아니라, 내가 걸려야 할 양을 얻는 꿈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일대일 양육 3대를 연결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이다. 일대일로 태교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1대는 “일대일 양육이 끝나도 동반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고, 2대는 “본의 아니게 뱃속의 아이한테도 일대일 양육을 했잖아요. 그 아이와도 삶을 나누는 든든한 선후배가 되고 싶다”며 웃었다. 3대는 기대감보다 감

사함이 크다고 했다. “일대일 하는 동안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신 적이 있었는데, 양육자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부부가 일대일을 통해 마음을 많이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대일은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태어날 아기도, 앞으로의 믿음생활도요.”

일대일 3대 모두 특별하고 귀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렇기에 3대에게 일대일은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1대는 “3대가 함께하니 일대일의 대단함을 새삼 느껴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대일을 할 것”이라고 했고, 2대는 “일대일은 단순히 교회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의 끈입니다. 이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3대는 “일대일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어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어요”라고 흐뭇해했다.

일대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과제도 많다. 왜 해야 하는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은 필수불가결이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삶으로 하나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상처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 신청을 해보자. 아직도 일대일 양육을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어느덧 어엿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대일의 힘이다.

문의: 02-3215-351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십계명

출 20:1~17

“십계명은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명령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계명입니다.”

인간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양심의 기능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양심의 기능이 있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입니다.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죄악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죄를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법이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법을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죄는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은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양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법조문을 들이대시면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명령해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양심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양심을 회복시키고,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2절).

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그 법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자유케 된 민족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요약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십계명 앞에서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제사법을 포함한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공동체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폐지되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미리 보여준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판법은 그 시대의 문화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유대인에게나 그 밖의 모든 민족에게나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전히 유효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이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은 모세시대에 주어졌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요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고, 많은 사건들은 십계명의 역사적 예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부정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정반대로 해야 하는 명령까지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면 정반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긍정명령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상태까지 포함하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해석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우선입니

다. 예를 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신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3절).

이 계명을 긍정으로 바꾸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신 6:5).

이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타락한 인간에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전심으로 추구한다면 인생을 얼마나 평가절하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다”(4-6절).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교회에서는 6절까지를 첫째 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렇습니다. 루터교회와 카톨릭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합쳐서 보는데 기독교는 구분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위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상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을 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신을 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

서는 수많은 동물로 형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신, 고양이 신 등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놓고 섬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충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육신이 있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어떤 동물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섬기기보다 조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우상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심판이 임한다는 엄한 경고가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이 많은 민족들을 보면 집에도 우상이 있고, 마을에도 우상이 있는데 바꾸지 못합니다. 수대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조상들이 화낸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면 대대로 자손에게까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은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호와와 이름과 안식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7절).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발음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기도하고 때로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몇 자 적고 나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쓰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만 주문처럼 부르면 마술지팡이처럼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앨바인, LA, 샌디에이고,

지역사회와 교회, 다음세대 위한 사역 한창 해외비전교회는 지금 책임목회제 도입 중

Acts29비전이 선포된 이후 국내에는 10개 캠퍼스가, 해외에는 30개 비전교회가 세워졌다. 2003년 하용조 목사는 Acts29비전선포와 함께 30개 해외비전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 온누리 해외비전교회가 문을 열고 열방으로 흩어졌다. 동경과 우에다 온누리 해외비전교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중국 대련과 단둥, 그리고 미주지역에 13개의 비전교회가 세워졌다.

해외비전교회의 시초는 앨바인 온누리교회다. Acts29비전이 선포되기 전에 세워졌다. 하용조 목사가 미국 앨바인 지역을 방문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고 던진 말 한마디에 당시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한 장로가 순종하면서 2003년 8월 10일 앨바인 온누리교회가 문을 열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의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진 앨바인 온누리교회를 탐방했다. 인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도 방문했다. 그곳에서 Acts29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미주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였다.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있는 앨바인,
그 돌파구를 찾아라 'ACTS29 NOW'**



앨바인 교역자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앨바인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기업형 도시다. 앨바인의 첫 인상은 타 도시에 비해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적인 느낌이다. 앨바인 온누리교회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유명한 부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에 위치해있다. 주변에는 새들백교회, 마리너스교회 등 대형교회가 있다.

잠보리(Lamboree) 로드 위에 위치한 앨바인 온누리교회는 올해 12년살 된 소년이다. 2012년 1월 담당목사로 부임한 권혁빈 목사와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다. 앨바인에는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한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한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다.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 캘리포니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적 시스템이 반기독교적으로 변했다. 나라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도 기독교적 색채를 떠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앨바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세속화가 더 심하다고 여겨도 무방하다. 동성애가 합법화

됐고, 마리아나도 합법화가 되기 직전이다. 외국인의 거주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앨바인 온누리교회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수년 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노력이 앨바인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에 선포한 'ACTS29 NOW' 비전이다.

ACTS29 NOW비전은 Acts29비전과 NOW의 합성어다. NOW의 'N'은 'New'로 새로운, 차세대 위한 사역을 의미한다. 'O'는 'Out reaching'으로 선교를 위한 운동이다. 'W'는 'Wave Making'이다. 파도를 만들어내는,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뜻한다. Acts29비전을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맞게 재해석한 결론이다. 앨바인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방향이다.

**지역교회와 사회, 다음 세대 위한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앨바인 온누리교회는 한마디로 역동적인 교회다. 지역교회와 연합해 여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다. 앨바인 시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노숙인 사역을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교에 집중하는 해다. 전도팀을 재구성하고,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초신자에게 친근한 교회,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시작했다.

권혁빈 목사는 “앨바인 지역과 시대적 상황에 비추 보면 앨바인 온누리교회가 가야 할 더 낮은 곳은 믿지 않는 영혼과 불신문화”라고 했다. 비기독교화된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접촉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바인 온누리교회는 '대안적인 이민교회'를 콘셉트로 정했다. 온누리교회가 이민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애너지를 밖으로 사회로, 선교로 향하게 하는 대안이 되자는 것이다. 권 목사는 “지난 10년은 소년이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눈을 떠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최근에는 차세대를 위한 '교육 로드맵'을 완성했다. 전도팀을 구성해 캠페인을 벌이고, 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계획 중이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교와 재즈피아노, 도자기공예, 영어공부반 등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축제도 구상 중이다.

미주비전교회 섬기는 OMA

앨바인은 'OMA(Onnuri Mission Alliance)'의 본부다. OMA에는 13개 교회가 속해있다. OMA의 목적은 각 지역사회에 맞는 미주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Acts29비전을 공유하고, 교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OMA는 미주교회를 섬기는 '돕는 자'이다.

최근 OMA에서는 차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각 교회 차세대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OMA는 법적으로 교단화 되는 과정에

있다. OMA에 소속된 교회들은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인다. 미국교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진행한다. 일 년에 한번 강단교류도 하고 있다.

선교를 위해 전력질주 'LA 온누리교회'

다음 방문지는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온누리교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LAX) 공항과 30여분 거리에 있다. 교회 근처에 코리아타운이 있어 한국교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LA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사우스 그랜드뷰 거리를 걸었다. 옛스러운 한국간판들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LA 온누리교회는 이 거리와 맞닿아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2층짜리 목조건물이다. 예배당과 교육부실, 새가족실 등이 있다. 1층에는 유치원이 있다.



이정엽 목사와 LA 성도들.

LA 온누리교회는 앨바인 다음으로 창립된 미주 비전교회다. 초창기에는 월서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은행과 백화점이 많은 '월서 길'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2008년 이름을 LA 온누리교회로 변경했다. LA 온누리교회는 도요한 목사와 안광국 목사 다음으로 2010년 11월 세 번째 담당목사로 이정엽 목사가 부임해 사역하고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TIMA(Tim America) 선교센터 본부도 LA 온누리교회에 있다. TIMA는 미주 비전교회의 선교지원을 발굴해 동원사역을 하는 본부다. 남미 선교를 집중적으로 돕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두 블록 정도 가면 '앨바라도' 길이 있다. 그곳은 라티노(Latino, 라틴계 사람)들의 명동이라고 불린다. 또 교회에서 2-3시간 거리에 멕시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LA 온누리교회는 라틴아메리카 선교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LA 온누리교회와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작년부터 LA 온누리교회는 '몽족사역'에 힘쓰고 있다. 몽족은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접경지역에 사는 민족이다. 중국 민족 중에서도 4-5만명으로 많은 수를 자랑한다. 몽족은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을 대신해 전쟁을 치렀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몽족에게 땅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베트남전쟁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탐방

으로 인해 많은 몽족남자들이 사망했다. 약속도 물 건너가 버렸다. 당시 몽족 지도자가 미국의 서약서를 들고 외신기자들을 불러 모아 아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 일을 계기로 몽족 주민들은 전쟁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미국으로 정치망명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미국에 온 몽족이 2만 명이나 된다. 그중 5만5천 명이 LA 온누리교회에서 3시간 반 떨어진 ‘프레즈노’ 지역에 산다.

LA 온누리교회는 매월 토요일에 한 번 왕복 7시간을 이동해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연다.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는 3개의 지역교회와 연합해 진행되고 있다. 그 덕에 매주 빠짐없이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됐다. 100명의 몽족 아이들이 모이는 귀한 사역이다.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 예배, 찬양, 리더십 등도 가르치고 있다. 몽족 리더십을 양성하고 배출해 자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몽족지역은 LA 청소년들에게도 유익이다. 포대를 삼기고 선교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파워웨이브 청소년 20~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비전교회, 책임목회제 도입 5월, LA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위임

LA 온누리교회는 65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예배 처소를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전에 교회가 있던 곳과는 1마일 떨어져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이다.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었다. LA에 한인교회가 400개나 있다 보니 더 가까운 교회, 더 섬겨주는 교회를 찾아간 것이다. 어느 곳에는 같은 빌딩에 한인교회가 일곱 개나 있다고 한다.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주어진 것이다.

한번은 교회를 섬기던 집사 한 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목회자의 잦은 이동 때문이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목사에게 자신의 장례식 설교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담임목사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교회의 변화, 정든 목회자를 떠나 보내는 성도들의 아쉬움, 목회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해외비전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온누리 해외비전교회 본부는 지난해 7월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책임목회제’다. 2~3년에 한 번씩 담임목사가 바뀌는 국내와 달리 해외비전교회는 사정을 감안해 책임목회제를 도입했다. 교회와 성도를 단단히 성장시키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다. LA 온누리교회는 오는 5월 23일(토) 이정엽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위임식을 한다. 비전교회에서 최초로 임명되는 담임목사다. 책임목회제는 사역지에서 2년 반 이상 목회를 한 담임목사 중에 본인이 그 사역지에 남기로 결정하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고 2/3의 동의를 얻으면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제도다. 이 과정을 LA 온누리교회와 네이퍼빌사카고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LA 온누리교회는 10년 동안 서울본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이제는 자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LA 온누리교회는 책임목회제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드디어 예배당이 생겼다 샌디에이고 온누리 9년 만에 입당예배

샌디에이고는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다. 샌디에이고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비교적 낙후된 도시였다.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 해군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에서 샌디에이고의 천연 항구로 이전했다. 군사와 관광, 교육, 연구의약, 해양 분야 분야의 발전은 샌디에이고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역적 특성을 따라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올해 창립 10주년 됐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샌디에이고 온누리



9년만에 얻은 샌디에이고 예배당.

교회는 9년 동안 교회 간판도 없이 여덟 개의 예배공간을 떠돌아다녔다. 샌디에이고 담당 금경연 목사와 이종실 목사는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목회는 “광야 2세대를 양육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두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2005년 7월 31일 창립됐다. 금경연 목사는 샌디에이고의 다섯 번째 담임목사다. 그동안 상가건물과 미국 교회를 빌려 주일예배를 드렸다. 9년 동안 여덟 번의 장소를 옮겼다. 다섯 달 전까지도 같은 상태였다. 주일 오전예배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드렸다. 사실 그 공간은 교회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마이크와 연주 없이 육성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었다. 성도들도 지쳐갔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지금의 예배장소를 찾게 됐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의 예배장소도 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두 달 전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장소를 계약하고 수리하는데 3개월, 공사에 3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19일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렸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오는 7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을 맞아 세 가지 큰 행사가 열린다. 첫 번째는 젊은 리더십을 인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성도들이 여럿 바뀌면서 더욱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5월 중순 전교인 수련회를 연다. 샌디에이고 성도들을 가족 같고 따뜻하게 엮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양육이다. 지난해 이종실 목사의 인도로 구약 성경일독을 했다. 90명이 참석했다. 마주 비전교회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가 맺은 커다란 열매다. 이에 힘입어 2학기에는 신약 성경일독을 시작한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다. 대학청년부가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다. 교회 인근 대학교인 UCSD에서 청년 30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서로의 집으로 자체들을 초청해 교제를 하고, 돌잔치도 모든 성도가 참석해 축하해주고 있다.

다음 세대, 유학생을 위한 젊은교회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산타모니카는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다. LA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있다.

지난 3월 6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거리를 찾았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UCLA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미국교회 트리니티랩티스트처치(이하 TBC)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2007년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개척한 캠퍼스다. 2011년부터 TBC를 빌려 예배를 드렸고, 2012년 비전교회로 승인이 되면서 김재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250명 중 150명이 대학청년이다. 유학생을 위한 교회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청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까이 위치한 UCLA와 SMC 대학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김재석 목사의 영향이 크다. 매주 청년들을 20~30명씩 집에 초청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대학부MC 유재형 형제는 “목사님의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덕분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의 3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일대일과 큐티 양육을 받았다.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청년들도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다보니 달라졌다.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한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는 시급한 두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첫 번째 기도제목은 갑작스럽게 예배장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3일 갑작스럽게 장소를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소를 빌



김재석 목사와 청년들.

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교회가 TBC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

두 번째는 담임목사 교체다. 7월 둘째 주부터 두 번째 담임목사로 정장철 목사가 부임한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해외비전교회 책임목회제도란?

책임목회제는 담임목사 교체에 따른 교회의 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교회를 위해 본부가 제시한 대안이다. 책임목회제는 현재 사역지에서 2년 반 이상 목회한 담임목사 중 본인이 남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3의 동의를 얻으면 담임목사로 위임된다. 엘바인, 밴쿠버, 뉴욕(IN2, 뉴저지) 캠퍼스 세 군데는 예외로 둔다. 책임목회제는 LA 온누리교회와 네이퍼빌사카고 온누리교회에서 먼저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4일 LA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린다.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정 회복 위한 부부문제, 육아상담
이혼 및 사별의 아픔도 어루만져

가정사역공동체 프로그램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온누리교회)	 Marriage Builders 젊은부부학교
 아름다운동행 Couple Coaching Program	 이혼자치유학교 Divorce Recovery School
야베스맘(여성사별자모임)	헬로맘스쿨



사진은 지난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모습.

마틴 루터는 “가정은 민족의 행운과 불운의 원천”이라고 했다. 가정사역이 중요한 이유다. 세상의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가정을 성경적 신앙을 기초로 바로 세우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가정사역이다.

가정사역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역이다.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열매 맺도록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

온누리교회도 다양한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부부학교, 육아학교, 이혼자 및 사별자치유학교 등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다. 사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하가훈)는 1993년 24 가정(17)으로 시작됐다.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 년에 두 차례(상반기, 하반기) 스쿨을 진행한다. 결혼 10년 차 이상 된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 사역의 기초가 되었을 만큼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을 위한 홀리 스카웃(Holy Scout)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젊은부부학교(Marriage Builders, MB)는 결혼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 땅의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돕고 있다. 결혼 10년차 이하 젊은 부부들이 대상이다. 이

름 그대로 젊은 부부를 케어하고 가정사역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부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부부코칭 프로그램이다. 일대일제자훈련방식을 부부코칭에 접목했다. 코치가 된 부부가 세 가정을 양육한다. 2012년 문을 열었다. 다른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현재까지 255가정이나 수료했다. 이 중에 65가정의 부부코치를 배출했을 만큼 열매가 풍성하다.

이혼자치유학교‘DRS(Divorce Recovery School)’는 이혼자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 이혼자, 이혼위기에 있는 사람, 별거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매주 토요일 예배와 매번 두 번의 스쿨을 운영한다.

타교인 비율이 60%나 될 정도로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타교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야베스맘(여성사별자모임)은 사별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과 두려움을 예배를 통해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예배와 모임을 갖고 있다(오후 7시, 서빙고신관403호).

헬로맘스쿨은 출산 전에는 성경적인 태교와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출산 후에는 영유아기 자녀양육과 성경적 부모로 세워지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임산부스쿨’과 ‘출산후스쿨’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 임신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대상이다.

문의: 02-3215-322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칼럼 김선래 장로(가정사역공동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가정의 모습은 타락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달라진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다. 온누리교회에는 ‘가정사역공동체’가 있다. 공동체가 먼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하가훈)’, ‘젊은부부학교(MB)’, ‘이혼자치유학교(DRS)’, ‘아름다운동행(동행)’ 등의 훈련 프로그램과 대외 아웃리치팀, 드림사역팀이 유기적인 연합사역을 펼치고 있다.

나는 미국에서 3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 하가훈을 다니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때 번민이 생겼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1년에 100가정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애석했다. 10년을 해야 1000가정이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정들이 모두 참여하려면 100년을 해도 부족한 지경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마침 창설된 가정사역공동체에 합류했다. 나의 선교는 이곳에

게 가정사역을 소개하는 것이다.

가정사역본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 ‘아름다운 동행’(이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다. 5년을 참여하면서 동행 프로그램에 대해 확신이 생겼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각 공동체에 접목시키면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동행 프로그램은 코치 부부와 양육을 받을 세 부부가 한 조가 되어 일대일 제자훈련 방식으로 열번 만난다. 소그룹 모임은 나눔이 주다. 나눔을 통해 양육 받고, 나눔을 통해 치유된다. 동행 프로그램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열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대일 교제 같은 책자가 있다. 주먹구구식 나눔이 아니라,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나눈다. 둘째, 코치부부 한 가정이 지원자 부부 세 커플을 담당한다. 셋째, 소그룹별로 모임 날짜를 정해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넷째, 비용이 안 든다. 졸업한 부부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미나나 강의가 아닌

나눔을 통해 깨닫고 배운다. 여섯째, 1:3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보급이 빠르다. 일곱째, 스태프가 많이 필요 없다. 여덟째, 만남 장소도 조별끼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아홉째, 코치들이 돌아가며 강사가 된다. 열번째, 코치가 된 후에도 나눔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과정의 80%가 나눔이다. 나눔을 통해 배우는 위력이 상당하다. 양육 받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리더들도 배우는 쌍방향 소통이다.

동행 프로그램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소개됐고, 공동체 순장과 순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가정사역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면 교회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변하는 것을 많이 봤다. 동행 프로그램이 가정사역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해진 가정사역공동체가 교회와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가정사역공동체의 역할

군선교팀, 해군사관학교 전도집회 현장

잇을 수 없는 열정과 감동 그리고 눈물

근래에 맞지 않는 장면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자녀들을 차가운 바다에서 잃어버린 부모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나는 나의 구원만으로 안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선장의 직무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 소속되어 있다. 직장가 가정의 시간을 쪼개며 연중 6만 명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만나는 군전도집회를 30여 회나 참석했다. 그 일을 섬기면서 위안을 삼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 12:3).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때마다 되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군선교팀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대한민국 63만 군인들을 현재 200여 명의 군종 목사님들이 맡고 있다. 선교의 자원이 절실하다. 복음을 전해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현장의 외침이 끊임이 없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지난 3월 11일 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찾았다. 해군사관학교 전

도집회를 섬기기 위해서다. 집회 시작 전 20여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회를 준비했다. 각오가 남달랐다. 해군들은 전함에 승선해 1개월 동안 생활한다. 업무특성상 해군장교 한 명의 역할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저녁 7시. 집회장소인 대강당이 꽉 찼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230여 명, 부사관, 진해수병, 생도 가족 500여 명 등 총 730여 명이 참석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전도집회에는 13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진해수병 등이 참석하며 인원이 대폭 늘었다.

서울에서 전해를 가려면 5시간이 걸린다. 거리가 멀어 자주 가지는 못한다. 그 대신 이번 집회를 위해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매일 아침 중보기도를 해왔다.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아니면 집회에 대한 갈급이 있었던 것일까. 전도집회에 참석한 장병들 중 일부가 울먹이며 찬양하고 기도했다. 집회가 끝난 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한 병사들도 많았다. 특히 군선교팀의 간절한 기



해군사관학교 전도집회에 참석한 병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

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나보다. 손신국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700명이 넘는 집회 참석자들의 영혼을 울렸다. 집회 당일엔 물론 일주일, 지난 오늘까지도 집회에서 느낀 감동과 은혜에 대한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 당일 영적방해가 심해 염려됐다. 하지만 굵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했다. 마음을 합해 섬긴 스태프들과 모든 참가자들이 전도집회를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집회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군종목사님이 전도집회에서의 섬김이 정말 큰 감동이었다고 보낸

메시지였다. 해군사관학교 전도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도 해군사관학교에는 그 여운이 잘게 남아있다고 한다.

해군 복음화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광식 해군사관학교교회 담임목사님과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조영주 제독(장군)님의 간절함이 이번 해군사관학교 전도집회에서 잇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앞에 나서는 역할과 뒤에서 섬기는 역할 모두 아름답게 빛난 이번 해군사관학교전도집회는 내 삶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 김호성 집사(군선교팀)

사회선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돼야”

3월 16일 사회선교사역자 모임

지난 3월 16일(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사역자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 소속 공동체 사회선교 담당자로 및 총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배홍일 목사(사회선교 담당)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회선교적 역할과 실천을 강조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냄 받은 선교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 공약 ‘러빙유’ 캠페인

지난 16일 모임에서 정진호 장로는 ‘러빙유(Loving U)’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캠페인은 온누리교회는 올해 표어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를 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공약이라고 했다. 러빙유(Loving U) 캠페인의 U는 Uncomfortable(불편함을 낮아짐의 시작으로 보고 감수하는 것), Unfamiliar(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 관계 맺기), Unsafe(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를 뜻한다.

러빙유 캠페인은 개인 실천, 교회 실천, 공동체 실천으로 나눠진다. 개인 실천 캠페인은 음식 안 남기기, 교회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지역사회 자원봉사 기관 찾아가기, 소외된 이웃과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 빛 줄여주기, 필요 이상의 유산 안 물려주기 등이다. 교회 실천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가지씩 진행된다.

3월은 먼저 인사하기, 4월 교회에 차 안 가져오기, 5월 텀블러(개인컵)휴대하기, 6월 이웃집 찾아가기, 7-8월 여름 이웃리치 및 소외된 이웃 찾아가기 등이다.

공동체 실천 캠페인은 한 다락방 한 사역(지역 환경개선참여, 지역 내 도움 필요한 이웃과 관계 맺기)과 순 자발적 참여(가까운 소외 이웃 품고 돌보기, 통일 위한 중보, 환경/인권/경제/정의의 관련 세미나 참여 등)가 있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사회선교팀은 지난해 출범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부서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더 낮은 곳을 향한 실천으로 ‘러빙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믿음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 '전밀라'

전밀라 목사
(1908~1985)

‘최초’라는 단어는 늘 주목받는다. 지금은 일반적인 물건이나 직업, 사건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당시에는 특별했을 것이다. 어쩌면 특별한 함보다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에는 많은 여성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을 꺼렸다.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꺼렸다.

전밀라목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다. 여성목회자의 선구자다. 그녀는 1908년 충북에서 1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전밀라 목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날마다 가족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키워나갔다. 아버지 전연득은 제천, 청양, 충주, 원주 등지로 전도를 다녔다. 그녀도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을 이주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한국 최초 여성목사 전밀라 목사 안수식 모습.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전밀라목사는 학교에 늦게 입학했다. 이웃과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12살 때 충주보통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다. 그 뒤 공주영명학교에 들어갔다. 졸업 후 교장의 권유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193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부인’으로 임명받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1935년부터 원주 제일감리교회, 원산 중앙교회, 서울 남산교회 등에서 사역했다. 1947년에는 인천 창영교회로 파견돼 전도사로 일하게 됐다. 그때부터 그녀는 목사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1930년 조선감리교회가 조직되면서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신학교를 졸업해도 대다수가 목사를 돕는 전도부인으로 헌신했다. 전밀라목사는 달랐다. “감리교에서는 여성도 교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준비를 했지요 여성이

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여성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초의 여성목사가 되기까지

전밀라목사는 4년 동안 창영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1951년부터는 인천 갈월교회에서 담임전도사로 시무했다.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담임전도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전밀라목사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5년 동안 매년 한편씩 논문을 썼다.

1955년 3월 13일 드디어 최초의 한국 여성목사가 탄생했다. 전밀라목사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6회 중부연회에서 명화옹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목사안수를 받았다. 놀라운 점은 미국의 최초 여성목사 안수보다 한해 빨

랐다는 점이다. 그녀는 목사안수를 받고 인천 창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했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는 서울 양평교회에서 7년 동안 담임목사로 헌신했다. 당시 개척교회이던 양평교회에 부임한 그녀는 예배당 건축 등 교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밀라목사의 열정과 노력을 보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버렸다. 사실 여성이 목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전밀라목사가 그 편견을 깨뜨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다.

“전밀라목사는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괄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건하면서 강한 의지로 모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전밀라목사도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개혁, 전도, 사람들의 시선 등이 부담이었다. 그녀는 어려움을 말씀에 의지하며 이겨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빌 1:20).

평생을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던 전밀라목사는 1979년 5월 은퇴했다. 은퇴하면서 그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과오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정릉의 감리교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성서교육과 전도활동을 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던 전밀라목사는 1985년 10월 30일 소천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영화를 말하다 김윤식 목사(양재 청년부)

스마트폰에 빼앗긴 관계의 기쁨

<브라더존스의 일가>의 개막작

휴 그랜트

어바웃 어 보이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를



영화 ‘어바웃 어 보이’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단절된 채 스마트폰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린다. 사람으로 가득찬 지하철 안에서조차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영화 ‘어바웃 어 보이’는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12살짜리 왕따 ‘마커스’라는 소년과 절친은 미혼남 ‘윌 프리먼’이 주인공이다.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친구가 없다는 점이다.

마커스는 우울증을 앓는 홀어머니와 깊은 의존 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친구들에게서 고립되어 있었다. 윌은 자유롭게 즐기는 삶을 추구했기에 어떤 여성과도 결혼하지 않고 가벼운 관계에만 머물렀다. 그런 윌이 영화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섬이다. 게다가 현대는 독신으로 살기에 적당한 시대다. 바이흐로 섬의 시대다.”

그런 윌의 근사한 섬 생활은 소년 마커스를 만나면서 서서히 무너졌다.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마커스와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윌은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든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웃들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을 위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게 문화적,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관계와 소통에 목말라한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찾는다. 하지만 미디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의 외로움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건강하게 해소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11절을 보면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들어와 충만하게 된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 말미에 윌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섬이지만 섬들은 바다 밑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대의 편리함 속에서 상실된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만나야 한다.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의 주역 ‘군산 구암교회’

모습은 사라졌지만 정신만큼은 살아 있다



▲옛 구암교회. 현재는 군산3.1운동기념관으로 운영된다.



▲현재 구암교회. 한강이남 최초의 3.5운동은 구암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강화도조약(1876년)으로부터 23년 후 1899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이 개항했다. 11년 후에는 한일병탄(1910)이 됐다. 1914년 군산은 쌀 수출 수송 증가로 전국 제1의 수출항이 되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일제의 착취 현장이었다. 1919년 군산은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228명이 더 살고 있는 도시였다. 당시 군산 사람들은 일본의 압도한 착취로 인해 가슴속에 일본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92년 11월 3일 한국에 입국한 미남장로교 7인의 선교사들 중 전킨(William Mcleery Junkin, 한국명 전위럼) 선교사 부부와 의료선교사 드루(Dr.A. Damer Drew, 한국명 유대모) 선교사 부부가 헌신적으로 사역한 결과 ‘군산 선교스테이션’(군산 구암동산을 중심으로 교회, 소학교, 영명남학교, 멜본디여학교, 병원, 선교사사택, 성경학당 및 숙소 등이 있던 곳)이 생겼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1세대들의 믿음이 한강이남 최초의 3.5만세운동(1919)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군산3.1운동기념관과 구암교회

긴 겨울이 어느새 지나고 봄기운이 만연하다. 군산 구암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구암교회는 구암산을 오르는 길목 오른편에 위치해 있다. 왼편에는 군산3.1운동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2007년 군산시에서 옛 구암교회를 매입해 독립기념관으로 조성한 곳이다. 1층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문객은 아무도 없었다. 방명록을 살펴보니 학생들이 다녔었다. 3.1운동기념관에서 역사를 배워간 학생들을 떠올리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곳에는 독립운동사의 개관, 군

산지역 만세운동 약사, 1910년대에 사용한 성경, 강도 요령 교서 등 민속사와 군산지역 선교역사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군산3.1운동기념관을 나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구암산 아래 구암교회가 나온다. 구암산은 군산 선교스테이션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군산 선교스테이션이 조성된 데에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1894년 3월 의료선교사인 드루(Dr.A. Damer Drew, 한국명 유대모)와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한국명 이눌서)가 전주부터 목포까지 전도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에서 드루 선교사는 발에 물집이 생겨 육로 여행에 큰 부담을 느꼈다. 여행이 끝난 후 선교회에서 선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드루는 육로 여행에 지쳐 수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교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산에 선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교부가 바로 설치되지는 못했다. 호남지방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민심이 소란했다. 즉시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1896년 전킨과 드루 선교사 가족들이 이사를 오며 군산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선교사들이 선교거점으로 군산에 와서 기거했던 장소는 군산항 근방이었다. 일본인들은 그 지역을 수시로 점검했다. 선교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선교사들은 군산항이 개항되던 1899년 구암리로 선교지를 옮겼다.

12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군산 최초의 교회 구암교회가 문을 열었다. 교회 설립에는 장인택도 참여했다. 장인택은 1893년 1월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선교사공의회에 남장로교 위

원 레이놀즈, 전킨, 테이트와 함께 참석했던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1898년에는 하리슨(하위럼)목사가 구암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했다. 1899년에서 1900년까지 불(부위럼) 목사, 데이비스 목사, 엘비 목사까지 시무했다. 자연히 구암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1900년에는 95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교회당의 협소함을 느낀 교인들은 교회당 신축을 위해 헌금을 했다. 모든 교인이 연합해 기도하고 합심한 결과 구암리 15번지 땅을 매입하여 ‘지형 교회’를 지었다. 착공한지 3년 만에 완공하고 1919년 2월 23일 성전봉헌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성전봉헌예배를 드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3.1운동으로 수난을 당하게 된다.

특별히 구암교회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안락소학교는 의료선교사인 알렉산더(A.J.A. Alexander)를 기념하기 위해 ‘안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학교는 1901년 전킨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 1904년에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 소학교는 구암교회가 운영하였다. 1911년에는 홍종의 장로(구암교회)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곳은 오늘날 구암초등학교가 되었다. 1902년에는 전킨과 그의 부인은 여러 명의 소년소녀들을 모아 교육했다. 이곳이 영명남학교(현 제일고, 멜본디 여학교(현 영명여중·고)로 발전했다. 1937년 영명남학교, 멜본디 여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됐다.

호남지역 3.1운동의 불씨

군산의 3.5만세운동은 구암교회 교인이던 김

병수(영명남학교 졸업, 당시 세브란스의전 학생)로부터 시작되었다. 김병수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0매를 받았다. 이것을 1919년 2월 28일 군산영명학교 스승인 박연세(구암교회 장로, 이두열에게 에 전달한다. 영명남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3500매를 만들고, 태극기를 그리는 작업을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3월 6일 서래장날을 기하여 전개하고 영명남학교와 멜본디 여학교 전교직원과 전교생, 구암병원 사무원, 기독교 성도들과 일반시민까지 참가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3월 4일 새벽, 거사가 누설되어 군산경찰서의 일본인 무장경찰 10명이 출동했다. 일본인 무장경찰들은 주모자인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송정현 등을 끌고 갔다. 만세운동이 사전에 발각되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김윤실 교사를 중심으로 격분한 학생들이 모여 3월 4일에 잡혀간 교사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위운동을 기점으로 1919년 3월 5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주로 학생들에 의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배부되었다. 체포를 면한 기독교학교 영명남학교와 멜본디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 구암예수병원 사무원, 구암교회 교인들이 합세했다. 백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오백여명으로 늘어났다. 군산의 3.5만세운동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어서 더욱 뜻 깊다.

3월 한 달에만 군산경찰서 방화사건(12일), 군산보통학교 학생들 항일의사 표시로 자퇴서 제출(14일), 군산공립보통학교 방화사건(23일), 시민과 학생들 횡발시위(30일), 공판장(범원) 앞 만세시위(31일) 등을 했다. 3.5만세운동은 그해 5월까지 총 28회 일어났다. 이 운동에는 31,500명이 참여했다. 피살자는 53명, 실종 72명, 부상자 195명이 나왔다. 거룩한 희생이 뒤따랐다. 판결문에 기록된 이름들과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구암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만세운동은 일본인들이 독재했던 군산지역에서 자주독립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게 된 사건이었다. 군산의 만세운동을 통해 호남지역 3.1운동의 불씨가 타올랐다.

지금은 예전 군산 선교스테이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제가 선교사들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해방 후 돌아온 선교사들이 복구하려 애썼지만 선교스테이션은 결국 폐쇄됐다. 이후 한전에서 토지를 매입해 사원 아파트 등을 지었다. 그러다 군산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2007년부터 군산시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2017년까지 39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3.1운동 체험·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3.1운동의 정신만큼 살아 있다. 3월이 가기 전 군산을 찾아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행복드림콘서트 모습.

부모님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Dream)’ 콘서트

4월 12일부터 홈페이지, 주일 통합데스크에서 참가신청

부모님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Dream)’ 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5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서빙고 로비에 마련된 주일통합데스크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인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행복드림콘서트는 65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맞춤전도 집회다. 집회는 총 세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전도집회 신청자 모임이다. 신청자들의 중보기도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맞춤전도 집회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에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단계는 후속프로그램이다. 맞춤전도집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후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한다.

문의: 김연선 간사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월드비전과 MOU체결

선교교육방송 CGNTV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승호) 장로이 지난 3월 6일 지구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들을 알리고 지원할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NTV와 월드비전은 앞으로 해외 빈

곤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게 되었다.

지난 3월 6일 열린 협약식에서 CGNTV 유재건 대표이사사는 “개국 10주년을 맞이한 CGNTV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비전을 적극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월드비전의 양승호 회장 역시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세상에 가난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 공동체 선교사역자 상반기 현황

캠퍼스	권역	공동체	선교사역자	캠퍼스	권역	공동체	선교사역자
서빙고	A권역	강촌	김민찬	양재	1권역	강남A	김종호
		서빙고	김철환			강남B	이병찬
		용산	이원장		2권역	강남C	오정원
		신용산	곽태일			서초A	김권일
		이촌	강찬옥			서초B	이학일
		한강	신철우			서초C	오범규
	B권역	S브릿지	이강인		3권역	서초D	이동엽
		관악금천	문석곤			양재	윤종식
		광명	박선규		4권역	송파	나점두
		동작	조영준			분당A	이상협
		영등포구로	김성호			분당B	한동욱
		양천	임인숙		5권역	과천의왕	정상기
	C권역	이수	예상옥			산본안산	김종호
		강서	이인범	부천	1권역	안양평촌	최상용
		김포	박수웅			회락	박효신
		고양은평	임영필		2권역	민음	이동희
		마포	이태열			소망	손태웅
		서대문	강은철			사랑	이경호
		여의도	서문석			화평	서행기
	D권역	일산	노전기		3권역	동두리	정태혁
		동대문종량	장원규			서두리	정태혁
		북두리	홍갑진	수원	4권역	남두리	정태혁
		성북	정민호			북두리	정태혁
		노원	김순태		5권역	중서	양승경
		성동광진	신태형			유성	김경만
평택	평택	중종로	김명곤	노원	노원	동두리	유병진
		OCC	최경순			남양주	유정태
		천양사역	김정운			인천사랑	정완영
		강동A	이규복			인천소망	정완영
강동A	강동A	강동B	이규복	남양주	남양주	양지온누리	최원제
		강동B	이규복			양지온누리	최원제

모 집

시니어 아카데미 아르바이트 모집
일시: 4월 1일~6월 17일(매주 수, 9시~17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내용: 의자 및 장소 세팅, 정리

모집: 형제 1명(급여 7만원 식식 제공)

문의: 02-3215-3533

헬로맘 임산부스쿨(양재)

학습시작: 4월 3일

시간: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장소: 양재 비전홀A

문의: 02-570-7433

젊은부부학교 4기

시작: 4월 4일 / 매주 토요일 16시

장소: 교회 및 교원연수원

문의: 010-3804-1861

아름다운동행 15기

시작: 4월 11일 / 매주 토요일 15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010-7744-6906

iWe(결혼매칭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학청년부 결혼 매칭 프로그램 iW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회에서 평생 반려지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iWe 7기는 5월 9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형제는 1977년생~1983년생, 자매는 1980년생~1985년생까지다.

참가신청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메일(iweonnuri4u@gmail.com)로 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서빙고 예배학교 개강

2015년 1학기 서빙고 예배학교가 개강한다.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온누리 전시장에서 열린다. 5주 동안 진행되는 예배학교에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 성례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제로 김영진 목사(예배본부장)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238

오는 30일 햇불연합대성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에서 오는 3월 30일 ‘2015 햇불연합대성회’를 연다.

2015 햇불연합대성회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주제로 햇불선교센터 사랑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목회자, 평신도 구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강사로는 미국 트리니티북음주의신학교의 데이빗 다커리(David S. Dockery) 총장과 피터 차 교수가 선다. 통역은 김상복(햇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한다.

문의: 02-570-7064 / 정현주 기자

서빙고 만남의 잔치

날짜: 3월 29일(주일) / 장소: 선교관 시온홀(B2) / 시간: 오후 5시~7시

대상: 2015년 1월 19일~3월 14일까지 새가족 8주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김지수	관악금천 최승혁 지혜라	장현희 류은진 박정근 이미에 최은정	성북 김정은 이예림 윤종구 윤용석 박영희	이수민 이철영 유해무 김묘숙	일산 나예린 이지선 강정호	OCC 신혜인
강서 지송은 이진 김태훈 정선미 송미경 홍상기	김포 김동욱	노원 손인화 황인영	북부리 남성진	용산 김병수 최은정 이지희 임계순 김형민	중종로 조우상 최미나 이지희 박성철	S브릿지 이숙현 문지선 서현우 최은주 정운중 이현정 곽소연 김옥주 박상선 박혜경 박애리 김자원 권대일 김희정 하성호 김종현 임정은 서혜진 홍소피아
강촌 홍민희 최은영 김미소 이지영 김정화	동대문종량 서경일 김종열 이진아 김혁진	서대문 오주희 김수정 이상희	양천 이민철 강정희 육희정	이수 장대일	천양사역 김서현	
고양은평 유지훈 이규영 김정훈 주종석 안소현 전남철	동작 나민실 정우성 이욱진 유경자	성동광진 원준문 임영중 오진우 이경옥	영등포구로 김진아 박창호 이광열 강정주 김유진	이촌 이영훈 오우상 최원일 김희정 윤명자 이예윤 황광욱	특별한초대 김진주 정다미 김근민 윤종현 이수진	
	마포 이순섭				한강 오주은	



주 간 기 · 도 · 제 · 목

- 3월 23일(월) 러브소나타 ‘만남’을 통해 일본을 향한 새 결실을 얻도록
- 3월 24일(화) 사찰, 신도, 관광철 영적 어수선함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 3월 25일(수) 100개 협력교회와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예비 되도록
- 3월 26일(목) 행사장을 거룩한 장막으로 덮고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길
- 3월 27일(금) 전 강사진들의 건강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더해지도록
- 3월 28일(토)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 3월 29일(일) 모든 참가자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1041호 | 2015년 3월 22일(주일)

■ 대학청년부 간증

프렙(거지전도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 박귀철 성도(W공동체)

W공동체에 온지 3년이 되었다. 나에게서는 이번 프렙(거지전도여행)이 처음이었다. 내가 소속된 새가족팀은 두 조로 나누어 경기도 이천으로 가게 되었다. 버스를 탔는데 팀원들과 떨어져 앉아야 했다. 내심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옆자리에는 결혼식에 가시는 아주머니 세 분이 타고 계셨다. 옆에 아주머니가 내게 축의금 봉투에 이름 좀 써줄 수 있겠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 오셨다. 흔쾌히 써드렸더니, 건너편 아주머니는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한테 사진 보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육십이 다되신 연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다. 나는 사진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가까워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천으로 전도 여행을 간다고 말씀 드렸다. 가장 먼저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다니신다고 하셨다가 복음 전하는 중간에 “사실은 지금은 사는 게 바빠 못 다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 좋다”고 하셨다. 나는 영접기도까지 해드리고 “교회를 다시 꼭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아주머니는 이천에 내리면서 옆에 친구에게 “나는 오늘 좋은 짝꿍을 만나서 즐겁게 목적지까지 왔다”면서 자랑을 하셨다. 우리 조는 이천에 내려 어디로 가야할지 기도를 한 후에 ‘부활음’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가는 교회가 보

이면 내리기로 했다. 하차하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있었다. 따로 이천으로 향했던 우리 새가족조였다. 이천이 작은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지역,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했다. 프렙을 몇 번 다녀온 누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아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시 새가족팀을 만나 놀랐다. 나 혼자 아파트 단지를 돌며 놀이터에 갔다. 아이들이 공놀이 하는 것을 보고 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먼저 아이들이 먼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저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나는 아이의 신발을 묶어 주면서 “형이랑 같이 축구할까?”했다. 아이들은 좋다고 했다. 다섯 명의 아이들과 축구를 했다. 지쳐서 물을 마시고 쉬는 동안 옆에서 전도를 하던 다른 조 누나가 와서 그림전도책자로 아이들을 전도했다. 30여 분정도 아이들은 집중해줬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계획 없이 가는 프렙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실수 없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순간순간 지혜도 주셨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 프렙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견고히 믿게 되었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누군가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주기

/ 김혜련 성도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단계 과정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친구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친구가 전도폭발 전문으로 전해주는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나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공동체 형제로부터 전도폭발 서빙고 저녁반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전도폭발 전문을 외우면서 나의 마음에 울리는 것들이 있었다. 천국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삶속에서 나는 내 자신의 돈이나 공로, 혹은 자격이나 선행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속에 섰던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경험들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도 그것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 그 생각과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재단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전도폭발 훈련 과정 중에 노방전도에 참석해야 했다. 노방전도를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주님을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했다. 거의 거절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청년 노숙자를 만났다. 그 청년은 온누리교회를 출석했었다고 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이후로 그동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개인전도를 두 명이나 하게 되었다. 개인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전하는 나에게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생을 전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 또 하나의 CGN패밀리



CGNTV는 하나님의 보석함

/ 고이즈미 마사코(CGNTV 일본지사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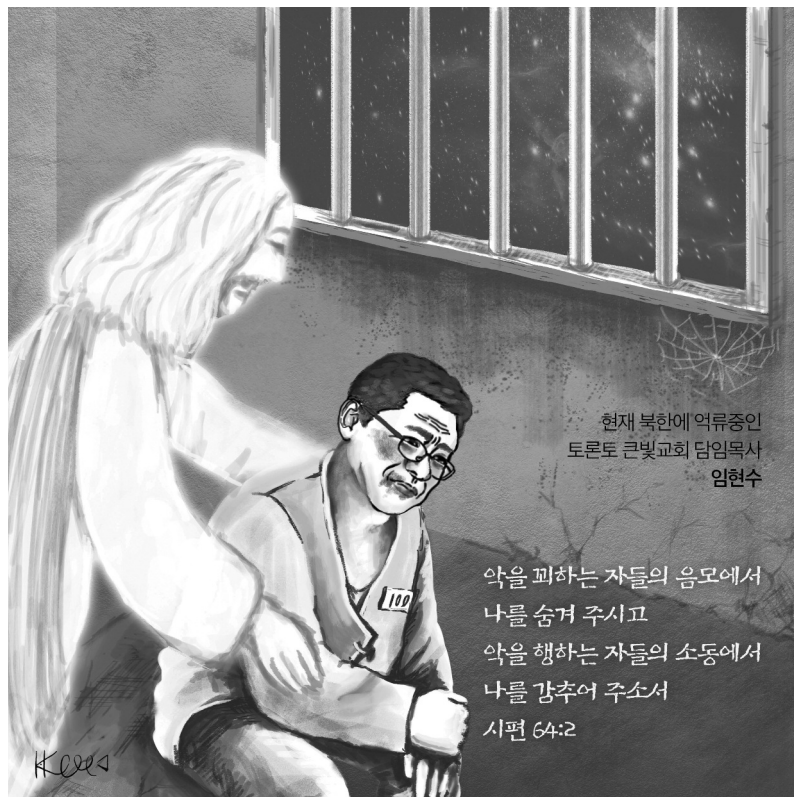
나는 일주일에 2~3번 동경에 있는 CGNTV 일본 지사를 방문한다. 방송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를 돕고 있다.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동경지사를 방문한 것이 벌써 8년째다.

내가 CGNTV와 인연을 맺은 것은 9년 전 지인의 결혼식으로 한국에 갔을 때였다. 나는 우연히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선교 보고를 통해 오사카에서 일본 CGNTV 개국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CGNTV를 알고 시청하게 됐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찬양,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설교, 간증, 찬양도 훌륭하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야기였다. 내가 선교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역을 방영해줘 감동받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리브소나타 집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병으로 본인이 갈수 없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 목사님이 스테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젊었을 때 선교를 위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떠올랐다. 사역하는 스테프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 목사님처럼 축복기도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내 몸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CGNTV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돕고 싶었다. 그 마음에 지금까지 돕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하는 봉사뿐이지만 CGNTV 직원들이 건강하게 사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 나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쁘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 사역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CGNTV를 보석함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보석함을 열어볼 때면 신난다. CGNTV 방송이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석함은 스테프들이 모든 것을 바쳐 만든다는 것이다. 그 현장을 내가 와서 보고 있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경미 간사의(디자인실)
위 클 리 공 감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임현수악을 피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시편 64:2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생명의 삶>이 '열왕기'를 다룬다. 이에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 'Talk Talk 열왕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야기하다'란 뜻의 talk가 말해주듯, 열왕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또 열왕기를 '톡톡' 두드려 보자는 뜻도 된다. 아무쪼록 더 깊은 큐티 목상이 되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1: 열왕기를 읽는 관점

열왕기상하에 나타난 관점

열왕기상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 성경에서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고, 한글성경은 이를 따른 것이다. 우리말에서 '열왕(列王)'이란 '왕'의 복수형인 '왕들'이란 뜻이다. '열방(列邦)'이란 단어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란 뜻인 것처럼 말이다.

열왕기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그의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두 나라가 외국 군대(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열왕기하 마지막인 25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뻔뻔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 바로 열왕기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기록됐다.

이런 점에서 열왕기는 <조선왕조실록>과 다르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188권 888책이 있다. 이 방대한 분량 때문일까,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열왕기는 약 380년의 기간을 다루는데, 조선왕조실록의 472년에 비교할 때 80%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고작 47장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은 25명의 왕을 다루지만,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 북이스라엘 왕 20명, 남유다 왕 20명, 모두 40명이 등장한다. 이런 사실은 열왕기가 왕의 통치 전변을 구구절절 기록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열왕기는 '특정한 관점'을 갖고 왕을 평가한다. 그 관점이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키

고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왕상 2:3)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유언(수 1:7-8)과 흡사하다. 또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수 23:6)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부른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왕의 모델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 왕들을 다윗과 같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평가한다. 유다로부터 독백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왕상 11:38)고 약속하셨다.

다윗과 같은 삶은 왕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자다. 그렇다면 왕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왕기에 등장하는 다수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다. 권력을 쥔 왕이었으나 왕답지 못했다.

"왕처럼 삼사다. 왕답게 삼사다." 그 왕의 길을 다음 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장로칼럼 김준영 장로(동작공동체)

젊은 부부들이 성인공동체로 가야한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청년부 W공동체 부부 그룹 멘토로 섬겼다. 젊은 부부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혹은 젊은 일꾼이 부족한 성인공동체로 가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현재 성인공동체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젊은 순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젊은 성도들이 성인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순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깨달은 동작공동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젊은 부부(27세~32세) 여섯 가정을 새가족으로 맞이해 한 학기 동안 함께 순모임을 했다. 이름 하여 새 젊은 순(갈렙순)이었다.

갈렙순에 속한 여섯 가정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한 가정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가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새신자 가정이었다. 젊은 부부들이 직장이나 가사일, 자녀 돌봄으로 인해 주중에 비쁜 것을 감안해 순예배를 토요일 저녁 시간으로 정해 순모임을 시작했다. 순모임을 토요일로 정하고 나서 모두 참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새내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직장에서 예고 없이 토요일 근무를 요구하거나, 가정 행사 참여 등으로 순모임 참석이 힘들 때가 많았다. 역동하는 새로운 순을 위해 여러 형태로 순모임을 계획해 보았지만 어떤 때는 한 가정도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갈렙순의 순모임은 우리 부부가 돌봤다. 다섯 가정이 교회 등록과정을 갖 마친 초신자여서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초신자와 신혼부부들이 쉽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조현삼 목사의 <결혼설명서>

를 이용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배우고, 결혼을 통해 경험한 천국들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새 갈렙순을 시작할 땐 먼저 믿은 가족이 초신자를 잘 인도해 주리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순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젊은 한 학기 동안이었지만 갈렙순원들을 섬기는 순을 따로 구성했다. 이들이 순모임과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를 더욱 느꼈다.

젊은 세대는 가정세대와 많이 다르다. 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 양육, 주말 가정행사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새순원리가 필요하다. 이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이 성인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모임 이외 필요한지, 순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의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W공동체의 김요셉 형제가 기억난다. 지난 40일 새벽기도 시간을 부부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빠짐없이 참석했다. 잠투정 없이 조용히 예배드리는 다섯 살 난 큰 아이와 백일 지 난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 공동체에서는 젊은 청년들과 초신자들이 성인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하고, 한국교회 차세대를 이끌어갈 갈렙같은 리더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지난호 권사칼럼 필자는 이성미가 아니라 이명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김소리 목사(평택 온누리교회)의 신앙에세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막힌 것이 통하게 되면 아픈 것이 없어지고,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의미다. 몸속을 흐르는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해야 몸에 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몸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관계의 불통에서 오는 아픔이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관계의 행복한 소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적 소통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헌신이다. 헌신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소통은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양쪽이 동등해질 때 비로소 이해하고, 통할 수 있다. 벤카드라만은 2009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이 사람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분자생물화학연구소 연구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연구소에서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신문기사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 연구소에서는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모든 연구원들이 차를 마시는 티타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차를 마

시는 시간만큼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뜻하지 않게 연구에서 막히던 것들이 풀리기도 했다. 50년 동안 노벨상을 13번이나 탈 수 있는 원동력이 소통에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뻐 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빌 2:6-7).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헌신, 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는 나눔이다.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채워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다.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마련하지 못하셨지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채워주셨다.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날에는 제자들에게 식사로 채워주셨다.

한 남편이 좋은 강의를 들어서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은 아내가 남편

에게 자신은 더 소중한 금이 3가지 있는데,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방금, 죄금, 송금'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이아몬드를 주거나 명품가방을 줘서 아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아내를 생각해 서 문자로 좋은 강의 내용도 보내고, 현금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부탁에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는 남편이 좋은 것이다.

셋째는 경청(傾聽)이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다. 청(聽)을 보면 '귀, 왕, 왕, 열, 십, 눈, 목, 한 일, 마음, 심'으로 되어 있다. 즉 왕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듯 그 귀를 열며, 열 개의 눈으로 보듯이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며,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되도록 듣는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경청해 주셨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모두가 무시했던 예리코의 거지 바디매오의 외침을 놓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불통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계의 아픔은 없을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어떨까. 또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맛있는 식사 한 끼 약속을 잡으면 어떨까.

크리스천과 소통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딸이나 네 남편 종들이나 네 가족들이나 네 문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8-11절).

하나님은 6일간의 일과 하루의 쉬이라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원리를 계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를 인간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보호하는 법칙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 2:2-3).

언뜻 보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마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시므로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함으로 안식까지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안식은 창조에 있어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게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공간속에 살면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면 시간 가는 줄 알게 됩니다.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공간보다 시간에 가깝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공간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별된 시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공간을 떠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공간중심의 삶에서 시간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공간중심에서 시간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공간속에 파묻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12절).

여러분, 신체 중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배꼽입니다. 배꼽은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꼽으로 연결된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배꼽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배꼽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배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신의 미래를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다섯 자녀는 키우는데, 다섯 자녀가 한 어머니를 못 모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13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살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까지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있는데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14절).

우리 시대는 일곱 번째 계명을 가장 무시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간통죄가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음은 단지 배우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확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지라도 마음의 간음한 것도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욕망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밀스런 생각과 마음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위증,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15절).

아마 두 사람 이상 살고 있는 한 이 계명은 반드시 필요합니

다.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예산이 이 계명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계명 하나만 지킨다면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경사회보다 현대사회에 더 필요한 계명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훔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훔치는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다 물건들이었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이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더 많은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불의하게 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옷이 필요하면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입혀주지 않았다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16절).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어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기인 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면서 이 계명을 어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홉 번째 계명을 끊임없이 어깁니다. 우리는 아홉 번째 계명을 한번 씩은 가볍게 어기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 아니면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네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17절).

열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심을 품었는지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밀스런 죄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인식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탐심은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탐심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근시안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명령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돌이키면
살아난다

이재훈 지음

회개 없이 회복 없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

35

〈돌이키면 살아난다〉
이재훈 저 | 두란노 | 13,000원

이 책은 환상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가라서를 다룬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스가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만큼 내용이 난해하다. 스가라서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한 이재훈 목사의 선물이 바로 〈돌이키면 살아난다〉다. 스가라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말씀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스가라는 물리적인 성전 재건 그 이상으로 영적 재건, 영적 회복을 촉구한다. 그리고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하라”는 명

회개없이 회복없다!

령과 훈계만이 아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받아 주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 보여준다.

회개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돌이켰을 때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스가라서의 메시지가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